

감동의 임실치즈 50년 '개봉박두'

'임실치즈 산증인' 지정환 신부, 기록사진 등 심민 군수에 전달

임실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임실치즈 50년사 역사문화공간 복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임실치즈의 원조이자 산역사인 지정환(더디에) 신부가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이후 50여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 등을 기증함에 따라 감동의 임실치즈스토리가 한 눈에 펼쳐질 전망이다.

임실군은 지정환 신부가 지난 1964년 임실에 부임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50년간의 임실 역사를 담아낸 사진들을 한데 모아 기록물들을 심민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지정환 신부는 부임 당시 임실읍내 사진부터 치즈를 만드는 모습과 당시 치즈모양, 공장을 짓는 모습, 임실치즈와 함께한 청년들, 치즈를 보관할 토굴을 파는 모습, 현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진들을 편집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기증했다.

지정환 신부의 기록물들은 임실을 성가리에 추진 중인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의 내부 전시관들에 꾸며진다.

군은 현재 임실치즈 생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환 신부가 최초로 세운 공장과 생가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한창 전개 중으로 오는 7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임실치즈사의 중심축인 지정환 신부의 일대기는 역사적 공간인 전시관을 통해 지나온 발자취와 성장과정, 주민들과의 사랑과 믿음 속에 맺어진 결실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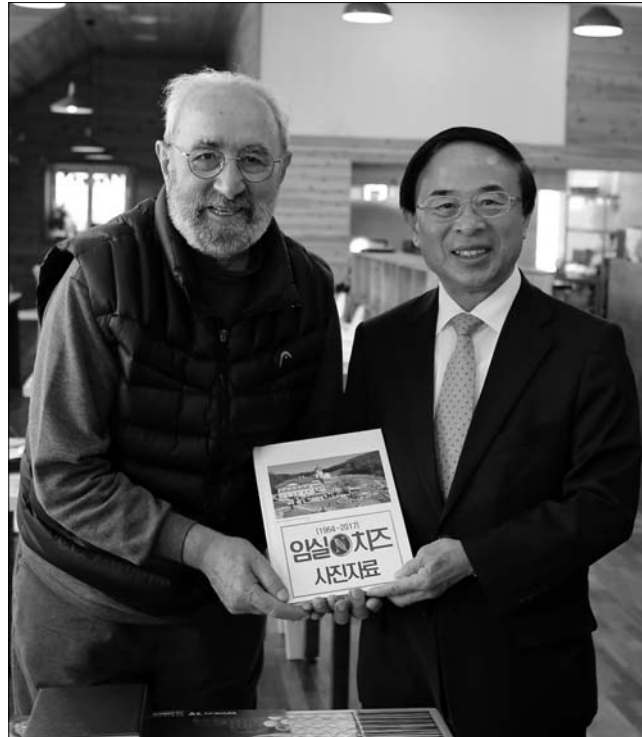
지정환 신부의 임실 스토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지 신부는 가난하고 척박한 임실을 위해 고민하다가 선물로 받은 신앙 2마리를 시작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치즈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3년여의 실패 끝에 1967년 치즈만들기에 성공, 1968년 가람베르치즈와 1970년 체다치즈를 잇따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조선히벨과 신라호텔 등에 납품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치즈는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젓소사육과 함께 조합을 육성하고 치즈공장을 통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익금은 농민들에게 고루 분배했다.

1981년 치즈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 신부는 주민들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갖춰지자 모든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넘겨 주고 가장 하나만 든 채 17년만에 임실을 떠났다.

이후 지 신부는 완주군 소양에서 1984년 중증장애인을 위해 무지개의



지정환 신부가 50여년간의 임실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심민 임실군수에게 전달했다.

집을 설립해 현재까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같은 공을 인정받은 지 신부는 지난해 2월 4일 법무부로부터 국적을 취득하면서 온전한 한국인이 됐다.

임실치즈사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지 신부는 아직도 임실에 자주 온다. 처음 치즈공장이 지어진 임실 성가리 샬터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성당, 치즈공장 등을 둘러보며, 과거 임실의 추억을 더듬어 자주 들려주곤 한다. 지 신부는 특히 해마다 임실치즈 축제에도 참석해 임실치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평소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 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일섭 서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평소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 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일섭 서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한달동안 '교통환경 집중신고 기간' 운영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평소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 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일섭 서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황송주 순창군수, 영농철 맞아 현장 릴레이 방문

오늘부터 30일까지

황송주 순창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뭄피해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농촌발전의 해답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군은 23일부터 30일까지 황송주 군수가 11개 읍면 주요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소통하는 '2017년 영농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현장방문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과 함께 농민들을 격려하고 영농 현장에서 농민들과 농업발전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봄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실제 순창지역에서는 가뭄피해로 모내기 지연, 발작을 적기 식재가 어려워지는 등의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변 영농철 임을 감안해 황송주 군수가 농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동행인원도 최소화했다. 23일 첫 방문지는 쌍치면과 북흥면이다. 쌍치면은 쌍치 대표 소득작물인 블루베리 재배 농장과 최근 노지에서 체리재배에 성공한 농장을 방문해 새로운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북흥면은 소득작물 정착에 성공한 오미자 재배 농장과 최근 이모작을 통해 돈 버는 작물로 각광 받고 있는 불베추 재배 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논콩 첫 식재지도 방문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적성면, 25일에는 풍산면과 유등면을 방문하며 30일에 순창을 방문을 끝으로 영농현장 방문을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11개 읍면 영농현장 방문 시에는 면지역 주요사업장과 식용달팽이 사육 6차산업 추진 농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을 방문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지리산 철쭉제 성황리에 마쳐

제23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지난달 22일 개장해 40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가운데 지난 21일까지 한 달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철쭉제는 허브밸리 내 행사장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거리장터, 학생 사생대회, 종이나라 만들기, 노래자랑, 주말공연 등을 운영하여 축제기간 바래봉을 찾은 등산객과 상춘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지리산 고령지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여 운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가공식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돌발해충 방제 홍보 강화

임실군은 최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홍보 지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하는 갈색날개매미충은 지난 2014년 이후 발생지역이 급속도로 확장돼 북송아, 사과, 배 등 과수는 물론 민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산림과 과수원을 오가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나무를 흡즙해 영양불균형과 감염병을 일으키고 배설물은 그을음병 등을 유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사랑의푸드박스' 지원

임실군노인복지관(관장 한금수)은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로 전환되면서 가족공동체에 대한 인식붕괴로 독거노인의 증가와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가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후푸드박스'를 지원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실군노인복지관은 임실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50여명의 어르신에게 생필품과 후푸드박스를 전해주었다.

후원물품은 주로 어르신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어르신에게 전해주고 있다.

임실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지역사회주민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 유도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여 임실군이 추구하는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군수,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에 '고삐 바짝'

(임실군)

내년도 목표액 1100억원... 내년도 예산 대응상황·현안과제 집중 점검

심민 임실군수가 2018년도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22일 임실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1,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중점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예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심민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젠ڈ라에서 제5차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2018년도 국가예산 대응상황 및 현안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실제 군은 4월과 5월 실과장을 중심으로 3차례 이상 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집중 대응기간을 운영했다. 5월까지의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부처별로 심의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재부로 제출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